

2016년 흥이날철 부학회장 인사말

15학번 김태음

안녕하십니까. 흥이날철 학생회 부학회장 15학번 김태음입니다. 벌써 겨울이라는 계절이 찾아 온 것을 보면 어느덧 아쉽기도 하고, 그만큼 좋은 일도 많았던 2016년이 지나가고 기대 가득한 2017년이 오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난 일 년을 돌아 보면 빠른 듯 느리게 많은 일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렇게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면 2월 달에 갔던 LTC를 먼저 시작해서 부터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아마도 제가 부회장이 되고 나서 처음이자 마지막인 행사인, 미네르바의 향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먼저 미네르바의 향연을 도와준 모든 사람들에게 먼저 너무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축제를 준비하면서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이 아니었다면 축제는 완성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힘들 때마다 곁에서 큰 도움이 되어주었던 이번년도 학회장 대섭오빠와 작년 회장단오빠들께 특히 감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드릴 수는 없지만, 연극팀, 필드팀, 가요제팀, 춤팀, 토크 콘서트팀, 음향팀, 조명팀, 강연, 스폰 해주신 분들과 축제 구경하러 와주신분들 모두가 소중한고, 모두에게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준비하는 기간 동안 힘든 일도 있었고, 미숙해서 실수도 많았고, 실수에 대해 잘 해결하지 못해서 미안한일들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지나고 보니 너무나도 값진 순간

■ 2016년 흥이날철 부학회장 인사말

들이였기 때문에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고, 또한 저에게는 잊지 못할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났기 때문에 더더욱 한 평생 잊지 못할 미네르바의 향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를 사랑하는 마음이 크다는 것 하나만으로 주신자리에 대해서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비해 부족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었을 텐데, 저를 믿어주시고 도움을 주었던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잘 마무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분들의 기여도 많았지만, 아마 같이 도와주고 함께해준 16학번 학우들 덕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특히 고생 많았던 16학번 집행부 친구들, (민지, 민혁이, 수호, 주영이) 항상 많이 챙겨주지 못해서 미안한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래도 잘 따라와 줘서 정말 고생 많았다고, 고맙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많은 도움을 주고, 참여도 재미있게 해주었던 16학번 친구들에게도 정말 고맙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러주고 싶지만 개인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흥이날철 철학과. 아쉬움은 많았지만 정말 좋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학년 과대분들, 각 부서장, 부원분들, 각 분과장님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저의 파트너면서, 친한 오빠이자, 앞에서 이끌어준 선배인 이대섭 회장님께 정말 수고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16년 흥이날철 철학과가 이렇게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모두에게 좋은 기억 그리고 추억으로 남아있길 바라며 저도 마침표를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